






deepseek(딥시크) 개인 정보 유출

딥시크 이용 제한 해외에선

※ 2월 5일 기준



 한국	국방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 차단
 미국	텍사스주, 정부 소유 기기에서 사용 금지 미 해군, 전체 장비들에게 사용 금지령 미국 우주항공국(NASA), 접근 차단
 호주	정부 시스템·장치에서 딥시크 제품·응용프로그램·웹서비스의 사용·설치 금지
 이탈리아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차단
 대만	각 부처·기관(공공부문) 사용 금지



자료: 각사

The JoongAng

[단독]교육부도 ‘딥시크 주의보’ 발령 “학교 업무 AI 사용 자제”

일부 정부 기관·기업에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인 딥시크 접속을 금지한 가운데, 교육부도 학교·공공기관에 “AI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보안 단속에 나섰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시·도교육청과 대학 등에 ‘AI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딥시크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업무시 생성형 AI는 가급적 데이터 유출 우려가 있는 만큼 자제해서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며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보안성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기관 내부 접속은 피하라는 내용도 담겼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AI 활용 장려하던 학교도 딥시크 사용 기피

교육부는 이번 공문이 딥시크를 포함한 생성형 AI 전반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 소속 공공기관 보안 관계자는 “모든 생성형 AI가 수집 정보의 악용 위험성을 갖고 있지만, 딥시크는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과 중국 서버 저장, 중국 법률상 정보 제공 의무 등이 겹쳐 정보 보안의 불확실성이 더 크다”고 했다.

딥시크는 사용자 기기 정보, IP, 키보드 입력 패턴·리듬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교직원의 학습 행태나 성적 정보 등도 모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수집된 국내 학생들의 데이터가 중국의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